

한지에 바느질한 별무리...엷히고설킨 인연인가

김수영 | 입력 2016-06-20 발행일 2016-06-20 제22면 수정 2016-06-20

| 심향 개인전...21~26일 수성아트피아



심향 작 'Starfield'

심향 작가는 실과 바늘로 한지 위에 별을 담아내온 작가다.

한지에 바느질을 한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까만 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이 별인데 그의 별들이 하얀 색에 자리한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하얀색 바탕에 수많은 별이 무리지어 있거나 흩어지면서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갤러리팔조가 수성아트피아와 공동으로 심향 작가 개인전을 21일부터 26일까지 수성아트피아에서 연다. 2003년 대구에서 개인전을 연 뒤 청도,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열어왔던 심 작가가 오랜만에 다시 대구를 찾은 것이다.

갤러리팔조 김종희 대표는 "심향 작가의 'Starfield' 연작은 수많은 비슷한 형태가 자유롭고 불규칙하게 연결되는데, 구상과 비구상을 아우르며 순수함이 드러나는 형태미의 조화로 독창적 표현양식을 보여준다. 또 실이라는 매개체의 사용도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심 작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별로 표현한다. 그의 작품에서 각기 다른 존재인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드러나는데 이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비롯해 인간을 맺어주는 사랑, 정 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별들과 그 연결선들이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드러난다. 이를 통해 그 별들은 원근감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심 작가가 한지에 바느질한 것들을 수십 차례 겹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겹침은 결국 별이라는 형상의 가려짐을 의미하는데, 가려진다는 것은 심 작가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다. 비록 가려져 빛이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있지만 이런 존재들도 모두 제각각의 가치를 지니며 그 나름의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숨겨 보이지 않지만 존재마다의 고유한 가치는 있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며 이것은 존재에 대한 소중함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의미한다.

심 작가는 "어릴 때부터 자수를 많이 해왔으며 뒤늦게 대학에서 서예를 전공한 것이 한지와 바느질을 접목한 작업을 하게 된 동기"라며 "실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이며 꿰매고 엮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타일에서 무한한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다. 실로 한 올 한 올, 점과 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간의 인연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고 밝혔다.

(053)668-1566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프린트

취소